

8. 하박국 -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다른 사람, 질문이 많은 사람 ~~

‘하박국’이 라는 이름의 뜻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껴안는다면 자연스럽게 손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등 뒤에서 껴안으신다는 것, 품에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나훔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앗수르가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행하였기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앗수르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11절** 까지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굽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힘센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운데서 보니, 어떤 강대국도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나라들의 세우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하심’이 ‘교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무서운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쓰시는데, 그 힘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 말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심판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심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범죄함’으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했던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꺼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르심을 피해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직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하박국의 독특성은 말씀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고 선포했다면,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게 되나요?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 내 계획대로 삶이 살아지지 않을 때 말이죠.

인생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힘들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당시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때를 지나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강대하여 망할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이 신약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예언서는 대개 심판과 진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하박국은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유명한 하박국의 찬양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19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은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든지라도 나는 여호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다른 것이 있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동규 목사가 쓴 [하나님을 품은 사람 예언자]라는 책에 보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인용

해 두 부류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개의 꼬리를 밟으면 개는 뒤를 확 돌아보고 그 꼬리를 밟은 사람을 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꼬리를 밟은 사람이 주인이든 도둑이든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을 밟혔을 때, 응답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발을 밟고 참 무안하고 미안하겠구나!”

그래서 발을 밟은 사람이나 밟힌 사람이나 똑 같이 ‘excuse me!’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반사적인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지만,

응답적인 사람은 동일한 상황가운데서, 내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힘드시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소위 대중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대중들에 받아들여지는 일반화된 원리 같은 것입니다. 헛된 믿음 같은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이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 성경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B형 남자는 나쁘다’ 같은 것인데, 실제 주변에 보면 B형 남자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페루 인디언의 피는 남녀 모두 100% A형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나쁜 남자가 하나도 없을까요?

대개 이런 일반화 작업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누군가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 ‘따라 간다’는 신드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종종 주식시장에서 이유 없는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90%인 개인 투자자들이 소문에 매입하거나 매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불안함’이라는 것이 늘 ‘따라간다’는 현상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따라갈까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열정도 없을 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대중적 심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중적 심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최현식의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병자호란 때 5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 한 무리가 압록강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적장이 ‘도망가라’고 권유했다.

도망가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한 것이다. 함정이었다. 만약 도망가면 인간사냥을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간 사냥이 시작되었다. 모두 청나라 병사들의 칼날에 죽어갔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아무도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죽자고 도망치느니 살아서 묻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 서군이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친다는 표현보다는 앞서 나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그가 말했다. “한 사람 쫓은 용기 내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들에게 희망이 생긴다.” 그래야 겁에 질린 조선의 백성들이 용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살려면 세상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겪는 역경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1) 바벨론의 침공을 기다림(3:1~19)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라고 호소한다.(1:2) 그의 조국 유다는 죄의 수렁에 빠져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1:4)

하나님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1:6)고 대답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하박국이 생각한 도움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1:13)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자기 임무를 다 마치면, 그들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임을 하박국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 그때가 될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2:4). 즉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선지자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대답한다.(3:2) 이것을 토대로, 하박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3:19)